

國際化時代의 大學教育



建國大 總長 權 寧 贊

I

大學은 民族의 燈臺이요 生命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大學의 良識과 良心은 곧 民族의 良識과 良心을 대표한다. 대학이 지니는 創造의 힘은 곧 國家와 社會發展의 源動力이요 底力이다. 그리고 대학이 비취 주는 眞理의 빛은 民族의 앞날과 歷史의 進路를 밝혀 준다.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는 어느덧 中進國의 隊列에서도 最先頭에 서게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開放社會, 競爭社會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치열한 挑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0年代까지만 하여도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의 모든 면에서 後進國의 名을 쓰고 몸부림치던 우리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70年代의 經濟的 高度成長과 이에 수반하는 社會的 近代化의 물결 속에 1980年代를 맞게 되었고, 이제는 「先進祖國」, 「世界 속의 韓國」의 創造라는 거창한 課題가 우리에게 대한 現實의 要請이요, 피할 수 없는 民族의 課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찌기 아시아의 黃金時代의 東方의 빛나는 燈臺로 높이 찬양받았던 우리 민족은 이제 다시 그 燈臺를 높이 켜 들고 격변하는 世界史 속에 뛰어들어 그 빛을 發散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民族發展의 歷史的 轉機에 처하여 대학이 짊어져야 할 使命이 얼마나 重大한가를 우리 대학들은 똑똑히 再認識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은 실 세 없이 급변하는 社會變動과 步調를 맞추면서, 아니 이를 先導하면서, 이 民族의 希望의 燈臺로서, 무궁한 生命力으로서, 發展의 源動力으로서, 그 時代的 役割과 歷史的 責任을 다해야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變化와 挑戰을 두려워하면 個人이나 民族이나 國家를 막론하고 發展에서 뒤질 뿐 아니라 歷史의 隊列에서 落伍하고 단다는 뼈저린 敎訓을 수없이 배워 왔다. 大學도 결코 例外일 수는 없다.

우리는 멀지 않아 西紀 2000年을 맞이한다. 앞으로 불과 16年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지난 20世紀는 科學과 技術의 發達에 있어 人類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繁榮의 한 世紀였다고 할 수 있다. 科學技術은 비단 한 나라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고 個人生活의 質的 向上에 지대한 利益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科學技術文明의 눈부신 발전이 한편으로 全地球의 規模의 여러 가지 問題나 人

間生活의 本質에 관한 심상치 않은 問題들을 파생시켜 인류의 장래를 樂觀만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도 看過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오늘의 國際化 時代를 살면서 지난 20世紀의 意義를 잘 把握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2000年代의 다음 世界를 展望하는 바탕 위에서 오늘의 대학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II

많은 學者들이 1980年代의 世界를 脫工業化社會 또는 情報化社會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情報化 社會에로의 進入을 契機로 종래의 工業化社會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産業革命이 움트고 있다. 이른바 第3의 産業革命이 臨迫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는 지금 中進의 꺾뎀기를 벗고 先進隊列에 뛰어들려는 過渡的 段階에 처해 있다. 2000년까지는 뒤늦게나마 우리도 工業化社會의 과정을 거쳐 脫工業化社會로 뛰어 들 것이 예상된다. 産業構造는 날로 달라지고 “하드”(hard)에서 “소프트”(soft)에로 轉換하고 있으며 電子産業에서의 革命的 發展 등을 비롯한 많은 變化가 일고 있다.

大學教育에 있어 이와 같은 급격한 社會的 變化는 심각한 挑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학들이 沈滯해 있다는 批判과 더불어 새 時代에 適應하고 이를 이끌어 가기 위한 새로운 改革을 力說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社會經濟의 發展과 大學의 實情 사이에 심한 不均衡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大學의 發展史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特徵을 찾아 보라고 하면 누구나 대학의 量的, 外形的 側面의 눈부신 膨脹을 指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 成長에 비해서 우리 나라 대학들이 과연 뚜렷한 大學理念 속에서 教育의 質을 사회가 要請하는 높은 水準으로 끌어올렸으며, 研究 및 文化創造의 成果가 충분했으며, 社會奉仕의 機能이나 學生指導에 있어 期待하는 水準에 도달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批判받을 여지가 많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科學技術의 轉機와 날로 加熱化되는 國際社會의 頭腦競爭, 教育競爭 속에서 우리의 大學은 問題解決을 위한 研究努力에 있어 不足한 점이 많았고 아직도 傳統的 學科別 講義中心의 注入式 教育의 舊態를 벗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다. 말하자면 대학은 과거의 學問의 所産만을 傳授하기에 급급하고 새로운 文化創造의 努力이 未洽한 상태이다. 그래서 研究分野가 教育分野와 直結되지 못하고 크게 蹉跎을 보이고 있다. 大學院은 몰라도 學部課程에서 研究와 教育을 結付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다.

다행히도 근래에 와서 우리의 大學間에서는 점차 主體性和 自律性에 대한 自覺과 認識이 높아져서 종래의 無分別했던 量的 膨脹主義, 外形的 虛飾主義, 百貨店式的 知識의 市場化, 他律的 統制를 自招하게 된 무기력한 自體 矛盾 등에 대하여 反省과 더불어 自己革新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대학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그만큼 成熟해 가고 있다는 證左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大學들이 國際化時代의 물결 속에서 강한 競爭력을 지니고 많은 挑戰에 對應하려면 먼저 大學自體가 長期的 眼目을 가지고 대학의 諸機能 發揮에 必死의 努力을 해야 하겠지만 國家的· 社會的으로도 적극적인 支援이 隨伴되어야 알찬 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世界의 여러 나라들은 科學技術의 눈부신 發展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깊은 相互依存關係에 빠져 들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 先進國의 문턱에 선 新興工業國家로서 세계 속의 우리의 役割이 무엇이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段階에 와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孤立해서 生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미 세계 속의 韓國은 政治, 經濟, 文化, 教育 등 여러 측면에서 國際化的 壓力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잃든 좋은 世界文化의 廣場에 同參하여 韓國의 多樣性을 加味하면

서 國際交流의 폭을 나날이 넓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좋고 나쁘고간에 우리가 國際社會에 미치는 影響과 이로 말미암은 反作用을 가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外向的인 姿勢로 세계의 여러 나라와 相互協力하고 利害關係를 調整하고 利益의 共通點을 찾는 努力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우리 나라가 國際社會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國際化的 過程을 摸索하는 데 先導的 役割을 해야 할 責任이 있다. 우리의 理想과 現實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멀지 않아 다가올 2000年代의 日標를 향해서 대학은 지금부터 準備하고 企圖하면서 착실히 一步 또 一步 前進해야 한다.

III

國際化時代의 大學敎育에 임하는 대학의 자세로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大學人으로서의 自己姿勢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것일 것이다. 오늘의 國際化的 물결이 우리에게 주는 意味를 잘 理解하고 대학의 存在價値를 생각해야 한다. 이 時代에 있어 대학이 追求하려는 目的과 이를 위하여 대학이 遂行하려는 諸機能에 대한 基本哲學이 올바르게 定立되어야 하고, 그 目的의 成就와 機能의 遂行을 위하여 대학이 效率的으로 努力하는 方途를 摸索해야 한다. 대학은 오늘의 國際競爭社會의 激動 속에서 民族의 進路에 대해서 燈臺役割을 하고 비전을 提示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位置를 확고히 堅持하고 自體의 國際的 競爭力을 向上할 수 있도록 대학의 體質과 力量을 強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 대학 앞에 가로 놓인 많은 挑戰과 難關을 內部에서부터 먼저 克服해 나가야 한다.

급격한 대학의 巨大化, 多元化 및 大衆化에서 오는 敎授不足, 施設不足, 質의 低下, 統合의 喪失 등 未解決의 問題解決에 과감히 應戰해 나가야 한다. 대학의 運營責任者, 敎授, 學生, 行政職을 포함하는 大學人의 自覺과 決意로써 問題들을 하나하나 克服하는 努力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의 主體性和 自律性을 위한 大學人의 확고한 意志와 力量의 結集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大學敎育은 大學 自體만의 노력으로서의 限界가 있다. 政府의 政策의 方向이 국제화시대의 대학의 노력을 철저히 支援하도록 設定되어야 하고, 企業을 비롯한 社會의 支援 또한 緊要하다. 政府는 대학이 世界的 眼目으로 폭 넓게 敎育하고 研究할 수 있도록 制度的, 財政的 뒷받침을 해서 頭腦競爭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는 環境條件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나날이 커 가고 있고 그들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치러야 하는 企業들을 비롯한 社會의 여러 組織들도 대학이 그들이 원하는 高級人力을 輩出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말고 積極的으로 그 利潤이나 資源의 일부를 敎育에 再投資하여 대학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投資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만 기다리는 無責任한 姿勢를 하루 빨리 是正해야 한다. 오늘날의 大學敎育은 그 質을 向上시키려면 막대한 財政的 投資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위한 大學의 財政能力은 이미 限界에 到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國立·私立을 막론하고 대학이 國際化時代의 우리 나라의 發展을 끌고 갈 牽引車 役割을 해야 한다면 오늘의 대학들을 國際水準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우리 民族 共同의 支援과 努力이 있어야 마땅하다. 특히 私立大는 國立大에 비하여 財政的으로 脆弱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國立大와 私立大는 設立의 根據만 다를 뿐이지 대학으로서의 敎育이나 研究의 目的에 있어서는 同一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어 私立大가 차지하는 比重은 壓倒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의 政策은 지금까지 私立大에 대해서는 「支援 없는 統制」만 해 왔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支援 있는 統制」로의 政策轉換이 아쉽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학으로서 財政的 負擔이 날로 커지는 理工系를 비롯한 自然科學系의 敎育은 주로 全國民의 租稅負擔 위에 운영되는 國立大에서 맡게 하고 비교적 財政負擔이 가벼운 人文社會系 등 분야의 敎育은 私立大에게 맡아 주도록 하는 定員政策도 國家資源의 效率的 投入이라는 眼目에서 檢討해 볼 만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大學의 實態를 보면 많은 대학들이 이미 세계의 여러 대학들과 姊妹結緣 등을 맺기도 하면서 教授 및 學生들의 相互交流를 활발히 하고 있어 大學教育 및 研究의 國際化를 實感케 하고 있다. 交流의 內容도 과거에는 이쪽에서 歐美先進大學으로 獎學金을 받으면서 보내는 式的 一方的 留學이었다. 말하자면 學問的으로나 財政的으로나 구결식의 交流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날로 向上됨에 따라 交流方式이 차차 달라져서 互惠平等의 原則이 適用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제 우리도 받는 것만큼은 주어야 하는 식으로 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대학이 相對方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準備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도 이른바 先進國의 大學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치 못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東南亞나 아프리카에서 우리 나라로 留學을 오겠다는 학생들의 增加傾向에 대해서도 제때로 이들을 收容할 수 있는 準備態勢가 덜 되어 있는 실정이다.

國際化時代의 韓國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先進化를 促進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대학들은 이제 異文化를 研究하는 데 특별한 努力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歐美文化만을 배워 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韓國의 繁榮의 주요한 土產이 된 것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는 第3世界의 文化에도 關心을 깊이 쏟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國際化時代의 大學은 다양한 異文化의 吸收와 消化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文化를 다양한 世界文化圈에 輸出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 民族의 精神의 發展을 위한 다양한 發想에는 限界가 있다. 따라서 異文化의 吸收와 消化를 통하여 그 發展을 促進될 수 있다. 그러므로 歐美文化를 어느 정도 흡수하여 同化한 韓民族이 그 無限한 發展을 위하여 國際化時代의 물결 속에서 또 다른 異文化를 찾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기도 하다.

經濟的 國際協力이라는 측면에서도 新興工業國家로서 그동안 수많은 迂徐曲折과 試行錯誤 속에 經濟發展에 성공한 우리 나라는 이제 後發開發國들을 위해 우리의 귀중한 經驗을 나누어 줄 때가 왔으며 大學도 그 一翼을 담당해야 한다.

國際的으로 다양한 知識, 技術 및 文化交流에 大學이 앞장서려면 이것을 可能케 하는 手段에 대하여 철저히 研究하고 教育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語學教育의 強化는 第1次的·必須的인 要素이다.

國際化時代의 大學教育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既存知識을 傳授하고 記憶시키는 데 그치는 식의 傳統的 教育方法의 止揚이다. 知識과 情報의 洪水 속에서 그 모두를 흡수하기도 어렵거니와 급속히 變化하는 社會的 要求에 對應하려면 教科書 中心의 教育보다는 問題解決式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教育方法으로 轉換해야 하고 社會的 要求의 解答을 줄 수 있으려면 政策指向的, 企劃指向的 學究態度를 갖도록 教育할 必要가 있다. 우리 나라 大學의 앞으로의 教育은 變化에 對應하는 創造性을 기르고 模倣一邊倒에서 脫皮하여 보다 獨創的인 研究活動을 돕는 데 力點이 두어져야 하겠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注入式教育 대신에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고 大學의 教授는 종래의 메너리즘에서 脫皮하여 무엇인가 세 時代에 맞는 새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스타일의 教授가 되어야 하겠다. 요컨대 오늘날의 國際化時代는 創造的인 大學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